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11월 26일까지 남도의 추상미술을 조명하는 '추상의 추상'전을 개최한다.



신호재 작 'Rumination-22001'

남도의 추상미술을 기리며 회상하다

역사적으로 남도는 의(義)의 불을 지켰던 뜨거운 고장이다. 의향이라 불리는 것은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됐다. 예향으로도 명명되는 것은 시, 서, 화를 비롯해 다양한 예술 장르가 융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술 분야, 그 가운데 추상미술은 예향이라는 수사에 필적할 만큼 활발하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척박한 추상미술의 토양에서 격동의 현대사를 자신만의 격정적인 붓질과 정제된 손짓으로 풀어냈던 이들이 있다. 김환기, 강용운, 양수아, 김보현, 정영렬, 최종섭, 김용복 등은 추상미술을 뿌리고 개화를 견인했던 작가들이다.

광주시립미술관 '추상의 추상' (抽象의 追想)전은 남도 추상미술 선구자들을 기리며 이들을 회상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21일 개막해 오는 11월 26일(제3, 4전시실)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강용운, 정영렬, 김영중 등 9명 작가의 회화 및 조각 등 6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낭중지추' (囊中之錐)에서는 해방 이전 남도에서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던 추상 1세대들이 주인공이다. 신안의 작은 섬에서 바라본 밤바다를 모티브로 큰 우주를 끌어낸 김환기, 이념 대립의 희생자로 사라지지 않는 상처를 지녔던 김보현의 작품을 만난다.

또한 중앙 화단보다 일찍이 비정형의 추상 형식을 선보인 강용운을 비롯해 민족 상징의 비극의 울분을 토해낸 양수아의 작품도 만난다.

근대 광주와 남도의 전통적인 미술 풍토와 현대사의 질곡에서 추상미술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대상과 조우한다. 감추려 한 숨결이 튀어나오듯 현대

'추상의 추상' (抽象의 追想)전

11월 2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9명 작가 참여 회화·조각 60여점

사의 곡절은 작가들에게 남다른 예술로 발현된다. '낭중지추'라는 주제의 의미가 각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2부의 주제는 '일엽지추' (一葉知秋). 잎이 떨어짐을 보고 가을이 오는 것을 안다는 것으로, 지역 추상미술이 뿌리를 내리고 무르익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수사다. 추상 1세대에게 미술 수업을 받았거나 중앙과 지역을 오가며 남도 추상미술의 가능성을 보여준 추상 2세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

1950년대 이후 남도 화단은 조선대와 광주사범학교 등에서 배출한 신진 작가들로 활기를 띤다. 강용운은 전남여고에서 광주사범학교로 옮기며 제자들을 길렀고 이후 광주사범학교로 옮긴다. 양수아가 후임으로 오면서 광주사범학교는 명실공히 추상미술의 중추로 부상한다.



양수아 작 '무제'

1960년대는 광주미술의 급변기였다. 강용운과 양수아 등이 전남현대미술가협회를 결성하고 이후 광주의 고교 미술부 학생들이 청자회를 결성했다. 1964년에는 최종섭과 박상섭, 명창준이 '비구상 3인전'을 개최했으며 자연스럽게 광주의 첫 추상미술단체인 현대작가 에보꼬가 결성된다.

전시실에서는 시공간의 변화에서 생명을 포착한 김용복, 한지를 통해 한국적 정체성과 열반을 추구했던 정영렬, 30년간 '에보꼬'를 이끌며 한국의 정서를 탐색한 최종섭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실에서는 시공간의 변화에서 생명을 포착한 김용복, 한지를 통해 한국적 정체성과 열반을 추구했던 정영렬, 30년간 '에보꼬'를 이끌며 한국의 정서를 탐색한 최종섭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남도의 근현대 조각을 조감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만고천추' (萬古千秋)라는 주제로 기획된 3부는 오랫동안 기억될 지역 조각의 발전을 이끌었던 조각 1세대들의 손결을 느껴볼 수 있다.

김영중은 선과 면의 유기적인 조화로 독창적 조형미를 표현한 작가로 중외공원의 '광주어린이탑 큰뿔'과 무지개다리인 '경계를 넘어'를 제작했다. 군더더기 없는 선으로 약동하는 생명력을 표출한 탁연하의 추상 조각들과 미처 선보이지 못한 작품들을 아카이브 자료로 살펴볼 수 있다. 지역 조각계에 미친 이들 작가들의 영향은 조각의 주재료인 청동과 철, 석재처럼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김준기 관장은 "이번 전시는 추상미술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시기에 굴곡의 역사를 헤쳐가며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꽃 피웠던 작가들의 삶과 작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이라며 "추상(抽象)을 매개로 추상(追想)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두에게 희망과 긍정에너지 전합니다

'해늘' 첫 번째 전시...31일까지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

개인이든 단체든 이름이나 명칭은 존재를 가장 명징하게 드러낸다.

나주에는 '해늘'이라는 순 우리말로 지어진 미술작가회가 있다. "늘 해처럼 밝게 살아가"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단순히 밝게 산다는 것을 넘어 '해와 같이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모두에게 평등한 빛을 비추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해늘 작가들이 첫 번째 전시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는 31일까지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 1, 2층 전시실.

회원들 정소영, 김은진, 이철규, 임희정, 강희주, 류미숙, 박하용, 신호재 등 모두 8명의 작가들이다.

이들 회원들은 "이번에 첫 번째 전시를 통해 모두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며 "해늘 작가들의 개성있고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미래의 우리를 비추고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고 전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전시 장소인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는 일제 강점기 세워졌던 잡자 공장을 리모델링해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 곳으로서 의미가 남다르다. 지역의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채로운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해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취지가 '해늘'의 해와 같이 밝고 빛을 비추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전시실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그림은 임희정 작가의 작품이다. 작가는 '갈'과 '주목'이라는 구체적이면서도 추상적인 모티브를 작품으로 구현했다. 작가는 "새로운 아침에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시원한 답을 찾으려는 감금함도 생긴다"며 "길 위에서 마주하는 소중한 길동무와의 여정들이 한결 한결 쌓이고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으로 완성돼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호재 작가는 해와 달과 산, 강, 구름, 나무, 매화 등 우리의 자연을 화폭에 끌어들이다. 뇌리에 쌓인 소재들은 응축된 이미지로 반복되고 발전해 현대적 이미지로 반추된다. 일필휘지로 그려낸 자연의 단면들은 여백이라는 동양의 상징성을 은은하게 보여준다. 작가는 "어머니의 품 같은 자연산천을 반추해 동양과 서양적 미감으로 자연이 주는 울림이 삶의 가치를 높이고 환경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고 의도를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악프렌즈' 쿵이·모리·취타 만나요

전남도립국악단, 굿즈 출시 MZ세대 눈길...국악 활성화 기대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 라인프렌즈의 '코니' 등 잘 만든 캐릭터는 열 사람 못지않은 문화적 파급력을 갖는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 이하 국악단)이 출시한 '국악프렌즈' 캐릭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OSMU(원 소스 멀티유스) 콘텐츠로 자리 잡아 국악 활성화에 기여할 지 시민들의 기대를 모은다. <사진>

국악단의 홍보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만들어진 캐릭터들은 2021년부터 본격적인 굿즈 제작 사업에 돌입해 국악단의 홍보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현재 총 5종의 캐릭터를 출시했으며 이름은 국악의 정단이나 악기 등에서 유래했다.

캐릭터는 '덩덕쿵' 소리를 본뜬 '쿵이(곰)'부터 자진모리장단을 닮은 '모리(사자)', 관악과 타악으로 연주하던 군례악 '대취타'에서 모티브를 얻은 '취타(거북이)'가 있다.

또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퍼진 남도잡가 '육자배기토리'에서 착안한 '토리(토끼)', 정월 대보름 사자탈을 쓰고 추는 민속놀이 '사자놀이'의 '노리(사자)'의 작명도 센스 넘친



다. 국악단은 이들을 활용해 부채, 수건, 캐리어 등 MZ세대가 선호할 만한 상품들을 출시해 왔다.

담당자는 "현재 제작되는 굿즈들은 판매용은 아니지만 국악단 홍보 물품으로 제작되고 있다"며 "추후 국악단 MD상품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귀여운 캐릭터들과 더불어 국악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글·사진=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시산맥기후환경문학상'에 김인식·손준호·김성윤 시인 공동 수상

'제2회 문학뉴스 & 시산맥기후환경문학상'에 김인식·손준호·김성윤 시인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김인식 시인의 '한 포기 열크' 외 2편, 손준호 시인의 '반려해변' 외 2편, 김성윤 시인의 '데드존' 외 2편이며 상금은 각각 300만원이 수여된다.

계간 시산맥은 21일 '제2회 문학뉴스 & 시산맥기후환경문학상'에 김인식·손준호·김성윤 시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후환경문학상은 환경을 살리고 지키자는 취지 외에 문인으로서 기후와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제정한 상이다.

송용구 심사위원은 김인식 시인 작품에 대해 "6편의 시와 함께 첨부한 김인식의 실천 방안들은 기후 위기의 '도전'에 맞서는 생태운동의 '응전'에 필요한



김인식 시인



손준호 시인



김성윤 시인

시인 작품에 대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도 인상적이었지만 실생활에서의 실천 사항이 시선을 끌었다"고 밝혔다.

김인식 시인은 충남 서산 출생으로 위상탄문인회, 시향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미국 메릴랜드에 거주 중이다.

2021년 '시산맥'으로 등단한 손준호 시인은 시집 '어찌자고 나는 자꾸자꾸' 등을 펴냈으며, 충신대 신화대학원을 졸업한 김성윤 시인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네팔에서 선교사로 사역 중이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1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혜와 힘을 그의 시 속에 공급하고 있다"고 평했다. 박민영 심사위원은 손준호 시인 작품에 대해 "반려해변"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따뜻하게 노래한다"고 언급했으며 한명희 심사위원은 김성윤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설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